



전북지방우정청이 설을 앞두고 소포 우편물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비상근무 첫날인 1일에는 직원들은 물론 허원석 청장까지 전주우편집중국에서 밥 늦게까지 설 소포우편물 특별소통 지원에 나섰다.

설 명절 우편물 폭주 예상

전북우정청, 16일까지 비상근무체제 돌입

코로나19 여파로 120만건 처리 예상돼

청장 포함 전직원, 우편집중국 소포 처리 '구슬땀'

전북지방우정청(청장 허원석)이 설을 앞두고 소포 우편물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비상근무 첫날인 1일에는 직원들은 물론 허원석 청장까지 전주우편집중국에서 밥 늦게까지 설 소포우편물 특별소통 지원에 나섰다.

올 설은 코로나19 여파로 우체국소포와 설 선물 등 전북지역 소포우편물이 지난해보다 9% 증가한 120만 건이 소통될 것으로 예상돼, 전북지방우정청은 2000명의 추가인력과 150대의 운송차량을 증차해 우편물이 적기에 소

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허 청장은 "완벽한 코로나19 방역과 동절기 종사원의 사고예방 활동으로 고객의 소중한 설 선물이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량 폭주 등으로 일부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고객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지방우정청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는 생물 등 부패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의 접수가 제한되며, 비대면 배달에 대비해 연락가능한 전화 번호를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한국판 뉴딜상품 가입하세요'

K-뉴딜 참여 붐 조성 위해 'ETF 특정증권신탁 하나로 Fn 디지털플러스' 가입행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2일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에서 한국판 뉴딜상품인 'ETF특정증권신탁 HANARO Fn K-뉴딜 디지털플러스' 가입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15일 문대통령이 가입한 '한국판 뉴딜' 상품 중 하나인 ETF는 자산 운용사가 농협금융 계열사인 NH-Amundi로 한국판 뉴딜전략에 따른 사업추진 대상 업종에 투자하며 디지털(Date, Network, AI)과 그린(친환경, 신재생에너지)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 관련 산업에 투자한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일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에서 한국판 뉴딜상품인 'ETF특정증권신탁 HANARO Fn K-뉴딜 디지털플러스' 가입행사를 실시했다.

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역량을 결합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은 지역사랑봉사단, 임직원 급여 1% 성금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부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지난 1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임직원 급여 1% 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 임직원 급여 1%성금 20,957,686원

이날 전달된 성금 2,100여만원은 전북은행 전 임직원의 급여 1%를 모아 마련됐으며, 향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은행지부사랑봉사단은 지난 한

'2월 이달의 새농민상' 시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1일 새농민을 선발하고 시상했다고 2일 밝혔다. 2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는 최재화·김귀덕 김귀덕 부부(만석농장·멜론), 김인철·김윤경 부부(상상사계절농장·과파), 심재웅·이봉임 부부(수경농장·화훼) 등 세부부다. 최재화·김귀덕 수상자(선운산농협, 조합장 김기욱)는 고창군 공음면에서 10년 넘게 시설원에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로, 황도멜론작목반을 이끌어가고 우수단지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상과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농업인의 고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 농가다. 김인철·김윤경 수상자(양곡농협, 조합장 신왕철)는 부안군 변산면에서 30년 넘게 다양한 발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쌓아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농약농업을 이용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앞장서는 선농업인이다. 심재웅·이봉임 수상자(양곡농협, 조합장 배정욱)는 익산시 왕궁면에서 20년 넘게 화훼작물을 재배해 왔으며, 전북 국회연구모임을 통해 농업인들과 정보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그룹, 설 명절 상생활동 나섰다

연휴 전 협력사에 납품대금 조기 지급·온라인상품권 구매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설을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상생활동에 나섰다. 2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 8,767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약 306억 원을 구매해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내수 진작에 기여할 방침이다.

▲협력사 납품대금 1조 8,767억 원 조기 지급... 2, 3차 협력사까지 확산 유도 이번 현대차그룹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위아 등 6개 회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천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력사들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0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에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 추석 등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으며,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1조179억 원, 1조1,087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가장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 자금이 2, 3차 협력사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협력사 임직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등 침체된 내수 진작 기여

현대차그룹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약 306억 원을 구매했다. 지난해 명절에도 각각 186억원, 285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바 있다. (*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에는 각 계열사 임금교섭 타결 영향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 금액이 크게 증가했음) 또한 이번 설에도 약 1만4,800여 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임직원들이 국산 농산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매년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소외이웃 및 사회취약계층에 생필품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원주=이중복 기자

중기 협동조합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강화

설립 위한 절차부터 세무처리까지 연간 최대 7일까지 제공 등 중기중앙회, 올해부터 경영지도사 등 구성된 지원단 규모 늘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육성정책 참여자격을 갖게 된 한편,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근거인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활성화 계획도 속속 수립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경영지

도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 규모를 확대하는 등 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을 통해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부터 회계서류 작성 및 세무처리 등의 컨설팅 지원을 연간 최대 7일까지 제공한다.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따라 조합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공동사업 분야는 ▲정책자금 신청 ▲R&D 및 공동기술개발 ▲공동상표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최장 20일까지 지원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앞으로 대표적인 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에 수행해 온 조합 설립과 운영, 공동사업 지원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조합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이면 협동조합포털사이트(jhap.kbiz.or.kr)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예산소진 시 까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우울하시다면?

'남쪽 나라의 따스함 머금은 진한 향으로 위안 삼아요'

농진청, '리남볼' 성분 등 들어있어 불안 완화에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일 코로나19로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꽃으로, 남쪽 나라의 따스함을 머금은 진한 향을 풍기는 국산 품종 프리지어를 소개했다. 프리지어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붓꽃과 식물로, 달콤하고 상큼한 향을 지닌 것으로 널리 알려진 꽃이다. 프리지어 향기는 향수, 샴푸, 로션 등 화장 제품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용중인데, 특유의 향기는 주로 '리남볼', '베타오시멘' 등 모노테르펜계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리남볼' 향은 대표적인 꽃향기 성분으로 여러 연구에서 강력한 불안 완화 효과가 증명된 성분이며, '베타오시멘'은 항산화, 향균 효과 등이 알려져 있다. 농진청이 향이 진한 프리지어를 선보이기 위해 전자료 등으로 대표 국산 품종인 '사이니폴드' 향을 분석한 결과, '사이니폴드'는 리남볼 38.7%, 베타오시멘 29.0%, 디리모네 5%, 알파-테르피넨 4.5%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또한, '사이니폴드'의 향기 강도는 대표적인 외국 품종(네덜란드)이자 향이 강한 품종인 '이본스' 품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호도 평가에서 '사이니폴드'는 5점 만점에 4.2점을 받아 3.4점을 받은 '이본스'를 제치고 화장품 회사(LG생활건강)의 향기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시중에는 '사이니폴드'의 향을 재현해 만든 모발 제품 3종이 유통 중이다. 농진청은 '사이니폴드'의 뒤를 잇는 품종으로 향기와 함께 모양, 색 등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노랑 겹꽃 '씨니폴드'는 향이 진하고 꽃대가 굵으며 꽃수가 많다. 흰색 '폴인러브', 보라색 '블루벨', 연노란색 '스윗레몬', 빨간색 '출출' '체리스타'는 화려한 색과 함께 진한 향을 품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원희 화훼과장은 "최근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며 프리지어 경매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4% 하락하고 수출도 급감해 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예쁘고 향이 진한 프리지어로 기분도 전환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축하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어르신들께 전하는 '빛사랑 꾸러미'

한전 군산지사, 설 앞두고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사회봉사단(지사장 정관영, 노조위원장 이수길)은 2일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150만원 상당의 '한전 빛사랑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군산지사는 금강노년복지관과 합동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홀몸어르신 10명을 선정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한전 빛사랑꾸러미'를 전달했다. '한전 빛사랑꾸러미'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권과 쌀 10kg, 라면 1박스, 참치 통조림 선물세트, 생필품 선물세트(삼푸·치약 등) 등으로 구성됐다. 한전 군산지사 사회봉사단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연장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돼 사각지대에 계신 홀몸 어르신들께서 좀 더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시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시는데 한전 빛사랑꾸러미가 힘이 되고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